

“올림픽 만큼 긴장” ... IOC 선수위원 치열한 5파전

태권도 이대훈·배구 김연경
사격 진중오·골프 박인비
배드민턴 김소영
대한체육회, 후보 5명 면접
3명 선정 뒤 원로회의서 1명 낙점
파리올림픽에서 본격 선거운동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를 뽑는 1차 관문인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 비공개 면접이 1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도전장을 낸 태권도 이대훈(31), 배구 김연경(35), 사격 진중오(44), 배드민턴 김소영(31), 골프 박인비(35) 등 5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0분씩 차례대로 개별 심층 면접에 참여했다.

후보 신청을 했던 양궁 오진혁(41)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비 프랑스 파리 전지훈련에 참가하느라 면접에 불참, 기권 처리됐다.

오진혁 측은 “대한체육회는 당초 8월 둘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면접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알려왔다”라며 “월드컵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일정이 겹쳐 있어서 (2주가량) 긴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오진혁을 뺀 나머지 후보들은 면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IOC 선수위원에 도전하게 된 과정과 자신이 가진 강점 등을 소개했고, 곧바로 면접장에 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를 뽑는 1차 관문인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 비공개 면접이 1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면접에 참석한 사격 진중오(왼쪽부터), 골프 박인비, 배구 김연경, 배드민턴 김소영, 태권도 이대훈. /연합뉴스

여가 평가위원의 질문에 답했다.

평가위원단은 체육회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선수위원으로 가져야 할 소양 등 다양한 기준과 관련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어 전문 심사위원은 선수들의 외국어 활용 능력을 평가했다.

올림픽 경력과 성적, 국제 활동과 인지도, 후보 적합성 등도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후보들은 모두 긴장된 눈치였다. 김연경은 최근 예정된 방송 출연을 취소하고 면접에만 집중했고,

이날 오전에도 소속사 사무실에서 예상 질문과 관련한 답변을 준비했다.

8년 전 선수위원에 도전했다가 외국어 활용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떨어진 진중오도 과외 교사와 영어 회화 공부에 전념했다고 전했다.

골프 박인비는 사전 인터뷰에서 취재진 요청에 따라 영어로 답변하는 등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자랑하며 자신의 강점을 드러냈다.

체육회는 면접 결과로 3명을 추린 뒤 14일 오전 11시 원로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할 예

정이다.

이후 선수위원회가 16~17일 최종 후보자를 의결하고 체육회는 최종 후보자 1명을 이날 마지막 주 IOC에 통보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공정성을 기하고자 면접 평가위원의 면면을 공개하지 않았다.

원로회의는 김정길 전 대한체육회장을 의장으로 박용성, 김정행 전 체육회장, 이강두 전 국민생활체육회장, 서상기 전 국민생활체육회장, 장충식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윤세영 전 대한골프

협회장, 권운방 서울대 체교과 명예교수, 천신일 세종 회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유승민 선수위원이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 벌어진 선수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2004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출신 유승민 위원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을 끝으로 8년의 임기를 마친다.

선수위원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 등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 /연합뉴스

‘불펜의 소금’ 김유신 잔물 피칭

후반기 6경기에서 7.2이닝 소화
2피안타 2볼넷 4탈삼진 무실점
“2군 간다 해도 후회 없이 던져”



“지금 2군 내려간다고 해도 후회 없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좌완 김유신이 자신 있는 피칭으로 불펜의 소금으로 떠올랐다.

후반기 KBO 그라운드에서는 박빙의 순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숨막히는 순위 싸움 속에서 KIA는 지난 주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한 주의 시작이었던 1일 삼성전에서 믿었던 선발 산체스가 못매를 맞았다. 산체스는 4회까지 10개의 피안타를 맞으면서 7실점을 했다. 여기에 류지혁의 2루타가 홈런이 되는 오심도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초반 흐름이 전개됐다.

결국 선발 산체스가 4회를 끝으로 등판을 마무리했고 김유신이 3-7로 뒤진 5회말 두 번째 투수로 투입됐다. 분위기를 탄 삼성의 일방적인 흐름이 예상됐던 경기는 그러나 11-8, KIA의 대역전극으로 마무리됐다.

김유신이 2.1이닝을 퍼펙트로 막으면서 흐름을 바꿨고, KIA는 짜릿한 역전승을 장식했다. 김유신은 이닝과 팀 승리를 동시에 책임졌다.

김유신은 이 경기 포함 후반기 6경기에서 7.2이닝을 소화하면서 2피안타 2볼넷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이 좋다. 전반기와 다른 공격적인 피칭으로 효율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김유신은 “올 시즌 처음 1군 올라왔을 때와 기술적으로 다른 것은 없다. 던지는 마인드도 똑같지만 올라가서 던지는 방향성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잘 해서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던졌다. 지금은 후회하지 말고 하나하나 전력으로 던지자는 생각이다. 전력으로 빠르게 타자를 상대하자는 생각으로 공을 던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올라오면서 마음 먹은 대로 이뤄진 것이다. 던지는 모습을 봐도 전에는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후회 없이 전력으로 던진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 나고, 팀도 올라가서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유신은 공격적인 승부와 함께 주무기인 커브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김유신은 “감독님께서 저한테 바라시는 게 제



김유신

구력이다. 가운데만 보고 거기서 조금씩 컨트롤 하면서 공을 던지고 있다. 공격적으로 해서 빠르게 상대하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커브를 (포수) 김태균 선배가 믿고 사인 내주셔서 자신 있게 던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주무기가 커브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태균도 김유신의 자신감을 채워주고 있다.

김유신은 “선배님이 생각보다 잘 던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다(웃음). 던질 때마다 ‘잘 던진다’고 크게 파이팅 소리를 내주셔서 자신감이 생긴다”며 “공이 느려도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던져라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자신 있게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KIA의 인상적인 승리 중 하나로 남을 8월 1일 삼성전은 김유신에게도 의미 있는 경기로 남았다.

김유신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들어갔지만 마음 편하게 올라갔다. 긴 이닝을 던질 줄 몰랐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던져서 팀이 승리를 하게 돼서 많이 기뻐다”며 “다 던지고 내려와서 아이싱 하

고 보강운동하는데 점수가 나니까 많이 뿌듯했다. 역전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형들도 ‘유신이 너 덕분에 이겼다’고 말 씀 해주셔서 많이 뿌듯했다”고 웃었다.

최근 선발진의 이닝 부족으로 불펜진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유신의 역할은 늘었다. 김유신에게는 기회이자 보람이 됐다.

김유신은 “경기 많이 나가고, 시합 나갈 기회가 생겼다. 필승조 형들과 (최)지민이가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는 게 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히 더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지금 2군을 내려가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예전에는 2군 내려가면서 ‘생각 없이 자신 있게 던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력으로 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잘 되니까 후회가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처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빠르게 승부하면서 이닝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 꾸준히 이렇게 던지다 보면 시즌 끝날 때쯤이면 나도 팀도 올라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하성, ML 진출 후 첫 한 경기 3도루

‘팔방미인’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 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세 번이나 도루했다.

김하성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 방문 경기에서 1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치고 볼넷 1개를 얻어 두 번 누상에 나갔다.

김하성은 15경기 연속 안타를 때리고 전날 끊긴 멀티 홈런(한 경기 홈런 2회 이상)도 새로 시작했다.

김하성은 경기 시작과 함께 ‘발 야구’로 시애틀 선발 투수 에머슨 행콕을 흔들었다. 행콕은 이날 데뷔전을 치른 새내기다.

김하성은 볼넷으로 출루해 2번 페르난도 타티스 타석 때 곧바로 2루를 훔쳤다.

타티스 주니어가 삼진으로 물러난 뒤에는 3번

후안 소토 타석에서 시애틀 배터리리의 허를 찔러 도루로 3루도 점령했다.

소토의 힘 없는 투수 앞 땅볼 때 김하성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홈을 찍어 선취점을 올렸다. 순전히 김하성의 기동력이 만들어낸 점수다.

김하성은 3회 1사 주자 없는 두 번째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날렸다. 이어 타티스 주니어 타석 때 또 2루 도루에 성공했다.

종전 최다인 자신의 한 경기 2도루를 넘어 3도루 신기록을 세운 장면이다. 김하성은 시즌 도루를 27개로 늘렸다.

김하성이 열심히 베이스를 훔쳤지만, 샌디에이고 후속 타자들은 시원한 적시타 한 방을 못 쳤다.

김하성은 5회 3루 심판의 체크 스윙 판정에 따라 헛스윙 삼진 아웃으로 돌아섰고, 7회에는 중견수 뜬공으로 잡혔다. /연합뉴스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 방문 경기에서 1회에 2루를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ML 필라델피아 로렌젠, 생애 첫 노히트노런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오른손 투수 마이클 로렌젠(31)이 124개의 공을 던지는 역투 속에 안타와 점수를 내주지 않는 노히트노런을 달성했다.

로렌젠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터스뱅크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9이닝 동안 무피안타 4볼넷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7-0 승리를 이끌었다.

올 시즌 빅리그에서 노히트노런이 나온 건 네 번째이고, 필라델피아 소속 선수가 달성한 건 역대 14번째다.

2015년 신시내티 레즈에서 MLB에 데뷔한 로렌젠은 주로 불펜에서 활약했다.

2019년엔 신시내티에서 1승 4패 21홀드 7세이브 평균자책점 2.92의 성적을 냈다.

그는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로 이적했고, 올해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거쳐 이달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됐다.

로렌젠은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뒤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적 후 첫 등판 경기였던 4일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8이닝 6피안타 1볼넷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이날 생애 첫 노히트노런을 작성하며 감격을 누렸다. /연합뉴스